

【우리 시의 향기】

시와 방언 혹은 구석진 말

유종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접시꽃

현실에서 접해서 알게 되기보다는 책이나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꽃 이름이나 새 이름이 많다. 동식물의 이름 뿐 아니라 지명같은 고유명사들은 대체로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백록담(白鹿潭)이나 추풍령(秋風嶺)은 지리 시간보다도 글이나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글 속에서 익숙한 동식물이지만 현실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때문에 접시꽃도 널리 알려지게 된 꽃이다. 접시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다름아닌 촉규화(蜀葵花)임을 알고 놀래었다. 우리 고향 쪽에서는 보통 촉규화라 했던 것이다. 흔히 담장가에 피어 있어 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편을 읽었을 때 익숙한 꽃이어서 정답게 생각되었다.

돌담을 끼고 돌아 나가는 하얀 길은 바다로 가고
풀른 바닷가엔
먼 이향(異鄉)의 항구로 들어가는 문 같은 작은 방축이 하나
무섭고도 그리운 은은한 바다소리에 낚은

오막사리 집들을 껌질처럼 벗어 두고
어제도 오늘도
빨빨리 바다로 헤어져 가버린 빈 담장가에
넋을 기다려 대해를 향하여 철 거운 빨간 축규¹⁾ 고!

— 유치환, “축규(蜀葵)있는 어촌” 전문

올타릿가 감들은 뚝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蜀葵²⁾는 붉은 물이 들었다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 서정주, “추일미음(秋日微吟)” 중에서

흔히 토박이말이 한자어보다 더 익숙한 법인데 축규는 필자의 경우 예외적이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에 위치한 경인 초등학교 화단에도 접시꽃이 피어 있다.

자작나무 혹은 붉나무

토박이말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낱말의 하나에 자작나무가 있다. 러시아 소설에는 밋밋한 백화(白樺)숲이 아주 자주 나온다. 자연 러시아에나 많은 이국종 나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백화가 자작나무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고향 쪽에는 자작나무가 흔치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읽고도 그 실체를 알지 못하였다.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돌아 파릇 하고

— 정지용, “忍冬茶” 중에서

“백화(白樺)옆에서 백화가 축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것이 송없지 않다”는 대목이 정지용의 “백록담”에도 보이지만 자작나무
 와 백화가 같은 것임을 오래 동안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윤영천 위음의
 “이용악 시전집”을 보고서야 자작나무의 방언에 “붓나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들창을 열면 물구지떡 내음새 내달았다
 쌍바라지 열어제치면
 썩달나무 썩는 냄새 유달리 향그러웠다

뒷산에두 붓나무
 앞산두 군데군에 붓나무

주인장은 매사냥을 다니다가
 바위틈에서 죽었다는 주막집에서
 오래오래 옛말처럼 살고 싶었다

— 이용악 “두메산골 1” 전문

이 시는 중학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시집 “오랑캐꽃”을 보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는 “붓나무”는 그저 함경도 지방에
 흔히 있는 나무려니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영천 위음의 책 속에 있
 는 “날말풀이”에 붓나무가 자작나무라고 적혀 있다. 사전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사 연구의 소산이라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에는
 적지 않은 방언이나 구석진 말이 나온다. 물구지의 표준말은 무릇으로 어린
 잎과 비늘줄기는 고아서 먹는 백합과에 달린 여러해살이 풀이다. 썩달나무
 는 썩어가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요 옛말은 옛날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다.
 바라지는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바람벽의 위쪽에 낸 작은 창을 가리키
 는데 쌍바라지이니 바라지 한 쌍이다. 함경도 두메 산골의 정취가 가득 배
 어있는 작품이다. 자작나무는 목질이 단단하고 껍질에는 방부제 비슷한 성
 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자작나무를 깎아 묘표를
 삼겠다는 대목이 보이는 시편도 있다.

놉새가 불면
황(黃)나비도 날으리

생활도 갈등도
그리고 산술도
더 잊어버리고

백화(白樺)를 깎아
묘표(墓標)를 삼고

동원(凍原)에 피어오르는
한 떨기 아름다운
백합꽃이 되오리

놉새가 불면—

— 이한직 “놉새가 불면” 중에서

눈포래

눈보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센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북국에 어울리는 자연 현상이다. 그래서 러시아 시인 에세닌에게 눈보라란 짙막한 시가 있다. 시인 오장환이 중역(重譯)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눈보라는 무섭게 휘몰아치고
끝없는 별판에
보지 못하던 썰매가 달리어 간다.

낮설은 젊은 사내가 썰매를 타고
달리어간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미칠 것 같은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은
사나운 선풍 밑으로
똑같이 미쳐 날뛰는 썰매를 타고 가버리었다.

— 에세닌, “눈보라” 전문

북쪽 함경도의 시인들이 눈보라를 시속에서 노래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두 시인들이 모두 눈포래라 표기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함경도 쪽에서는 눈포래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몰아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중에서

여보
내마음은 유린가봐 겨울 한울처럼
이처럼 작은 한숨에도 흐려버리니----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체하더니
하루밤 찬 서리에도 금이 갔구료

눈포래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오
밤이 물러간 뒤면 온 뺨에 눈물이 어리오

— 김기림, “유리창” 중에서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는 두만강 건너 만주 땅 주막집에서 만난 여인을 두고 노래한 시편이다. 식민지 현실의 서정적 반영에 주력한 시인의 작품으로서 아주 어울린다. 거기서 눈포래란 말은 과열음이기 때문에 눈보라보다 더 실감이 간다. 눈보라의 사나운 기세가 드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김기림의 작품은 화자의 마음을 유리창에 빗대어 노래한 시편으로 감상적인 것을 배격한 시인답게 기지와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모두 북쪽 고향에서 눈보라를 체험한 사람답게 고향 사투리로 노래하고 있다.

멈들레

봄에 피는 민들레는 전국 어디 가나 볼 수 있다. 민들레가 피어있는 한 옆에는 대개 보랏빛 제비꽃의 모습도 보인다. 러시아에 처음 가보았는데 곳곳에 민들레의 군락지(群落地)를 볼 수 있었다. 너무나 흔해서 봄에 그 잎새를 따서 김치를 담겨 먹는 교포나 고려인들을 보았다. 그 쪽 민들레꽃은 크기가 우리 쪽 두 배가 넘어서 허풍을 치면 해바라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 쪽과 달리 한 옆으로 제비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민들레꽃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온다.

계집애야 계집애야
고향에 살자

멈들레 꽃 피는
고향에 살자

— 서정주, “고향에 살자” 중에서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밭들레나 쭉니플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숙여 보라함인가

—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중에서

밭들레로도 쓰고 밭들레로도 쓰고 있다. 혼하디 혼한 풀이나 꽃일수록
엇비슷한 이름이 많지 않은가 한다. 서정주 시편에서는 또 지름길이 지슴길
로 되어 있다. 사선다지형 시험문제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일상용어로는 그렇지만 시어로서
는 틀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시어에서 방언의 효과
는 소홀치 않다. 구석진 말일수록 시에서는 효과가 크다.